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對中 추가 관세 철회,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동안 유예
 - 미국 10월 FOMC, 금리인하 예상. 양적긴축 중단 여부 및 파월 발언 등도 관심
 - Moody's,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영국은 재정 악화로 소득세 인상 검토
 - 중국, 민생투자 및 가계소비 확대 강조. 인민은행은 경제 성장 지원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美中 정상회담 확정, 9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中 무역갈등 완화, 일부 박테크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1.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엔화 약세, 지난 주 중반 섰다운 종료 기대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1.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하 지속 전망 등이 배경
독일은 양호한 10월 종합 PMI, ECB 금리 동결 예상 등으로 5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1.2% 상승, 한국 CDS 상승

		10/24일	10/17일	전주말대비			10/24일	10/1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791.7	6,664.0	+1.92%	국채 금리 10y	미국	4.00%	4.01%	-1bp
	유럽	575.76	566.24	+1.68%		독일	2.63%	2.58%	+5bp
	중국	3,950.3	3,839.8	+2.88%		영국	4.43%	4.53%	-10bp
	일본	49,300	47,582	+3.61%	CDS 5y	한국	25bp	24bp	+1bp
	한국	3,941.6	3,748.9	+5.14%		중국	44bp	45bp	-1bp
	달러지수	98.95	98.43	+0.53%	위험 지표	EMBI+	283	291	-8bp
환율	유로화	1.1627	1.1655	-0.24%		VIX	16.37	20.78	-21.22%
	엔화	152.86	150.61	-1.47%		WTI유	61.50	57.54	+6.88%
	위안화	7.1225	7.1270	+0.06%	원자재	구리	512.3	497.0	+3.08%
	원화	1,439.4	1,422.2	-1.19%		금	4,113.1	4,251.8	-3.2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對中 추가 관세 철회.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동안 유예

- 베센트 장관은 중국의 허리띠 부총리와 무역협상을 진행한 뒤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앞으로 1년 동안 유예될 것이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역시 철회될 것이라고 발표. 아울러 양국은 무역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부연
- 이번 발표는 양국이 최대 쟁점인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추가 관세 문제에서 모두 한발씩 물러서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 또한 양국은 11/10일 만료되는 양국 간 '무역 휴전'을 추가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 미국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연장이 기존의 90일보다 길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와美中 관계에서 모두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 또한 베센트 장관은 자국 농부들을 위해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도 합의했다고 발표. 아울러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 주석은 내년 말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향후에도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말레이시아(희토류 및 광물 수출 제한 철회), 태국·캄보디아(광물 협력 확대), 베트남(접근성 강화)과 차례대로 협정을 체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FOMC, 금리인하 예상. 양적긴축 중단 여부 및 파월 발언 등도 관심

- 10/28~29일 FOMC가 개최될 예정이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고용 둔화 및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연준이 경기 부진을 대비한 보험적 성격의 0.25%p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이와 함께 양적긴축(QT) 중단 여부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일부에서는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감안하여 11월에 QT을 중단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Bloomberg Economics). 파월 의장의 경제에 대한 평가 등에도 주의 요구
- 최근 고용 부진, 양호한 경제 성장 및 기업이익 증가, 인플레이션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AI 효과로 추정. 그리고 이는 금리인하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Bloomberg Economics)

■ 미국 10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전월비 상승. 서비스 부문 호조 등에 기인

- 10월 S&P 글로벌 종합 PMI는 54.8을 기록, 전월(53.9) 대비 상승. 신규수주 등이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이번 결과는 양호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4/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제조업(52.0→52.2) 및 서비스업(54.2→55.2) 모두 전월비 올랐으나 서비스업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시현

■ Moody's,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영국은 재정 악화로 소득세 인상 검토

- Moody's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했으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프랑스의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반영했다고 평가. 특히 정치적 불안정으로 재정지출 삭감 및 부채 관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영국의 리브스 재무장관은 30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11월 발표 예정인 예산안에서 소득세 인상 포함 방안을 검토

■ 중국, 민생투자 및 가계소비 확대 강조. 인민은행은 경제 성장 지원할 방침

- 4중전회 종료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생부문의 투자 비율을 높이고 내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중앙재정경제위원회는 향후 5년의 주요 목표는 경제 성장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소비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라고 발표.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선진국 대비 20%p 낮은 편
- 인민은행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강도, 시기 선택 등을 조절할 것이라고 제시. 환율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

■ 일본 9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강화. 일본은행의 10월 금리인상 여부는 불확실

-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월비 높은 수준(2.7%→2.9%). 다만 로이터 등은 일본은행이 정부의 경제성장 촉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나설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아울러 근원 CPI 상승률 둔화(3.3%→3.0%)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내구재수주 및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독일 10월 Ifo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증시 거품이 지속되는 이유, 여타 투자자의 성공더 큰 바보 이론 등에 기인 - WSI**
(Why Bubbles Can Keep Inflating in Plain Sight)
 - 투자자들은 시버블 등 광범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에 동참.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시 거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첫째, 과거에도 증시 거품이 상당 기간 이어졌던 경우가 존재. 일례로 닷컴 버블 붕괴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지속
 - 둘째, 주변 투자자의 수익이 후발 매수를 유도. 셋째, 고평가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믿음(the greater fool theory). 넷째, 주가 급등에 따른 공매도 포지션 파산 우려로 매물 감소. 다섯째, 상승장이 지속될 경우 전문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식 매도에 소극적. 수익률 저하로 회사 차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
-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민간투자 감소 등의 경제적 비용 초래 현실화 - Financial Times**
(Polarisation paralyses the US economy)
 - 극심한 정치적 대립으로 상대 정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문제를 유발. 최근에는 섯다운으로 매주 GDP 성장률이 0.1~0.2%p 떨어졌고, 이는 대략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 또한 의회에서 이민정책 관련 초당적 합의가 지연되어 노동력 공급 제한,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
 - 이러한 양극화는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 보류 등에도 영향. AI 관련 일부 투자를 제외하면 민간투자는 '24년 2/4분기 이후 감소. 다만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특수성은 이러한 양극화를 예외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미국 외 증시의 호조, 투자 다각화·달러화 약세·美中 무역전쟁 우려 등이 반영 - WSI**
(U.S. Stocks Are Breaking Records. The Rest of the World Is Doing Better.)
 - 금년 S&P500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국 ACM 지수 대비 부진. 이는 美中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 경제 성장 전망 우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등으로 투자자의 해외 증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 정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도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한 원인 중 하나로 거론. 그러나 향후 금리인하 및 감세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여전히 해외 증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공포와 FOMO로 인한 금 가격 급등,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 - 블룸버그

(The gold FOMO trade is too late)

- 연초 이후 금 가격이 1968년 이후 최대 폭 상승하면서 투자자의 FOMO(가격 상승에서 자신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가 확산. 금 매입 관련 검색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금 펀드 순유입액은 350억달러으로 2005년 이후 최대. 일부 투자은행은 60/20/20(주식/채권/금)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제안(Morgan Stanley)
- 그러나 금과 채권은 대체 가능한 자산이 아니며, 금은 높은 변동성 측면에서 오히려 주식과 유사. 역사적으로 주식은 금보다 낮은 변동성과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단기적으로도 주식·채권 포트폴리오가 간헐적 폭등에 그친 금보다 우월
-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높은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역설적. 현재는 '달러화 붕괴'가 공포 요인이지만, 미국 국채금리나 인플레이션 기대는 안정적. 달러화 약세 대응에는 비달러화 통화 바스켓 구성이 효과적

■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자원 왜곡과 부패 등으로 실패할 운명 - 블룸버그

(American 'State capitalism' Is destined for failure)

■ 연준, 9월 소비자물가의 세부 내용 고려 시 금리인하에 신중함 요구 - 블룸버그

(Good-But-Not-Great Inflation Data Should Keep the Fed Cautious)

■ 미국의 선박 건조 확대, 셧다운 이후 對中 견제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될 소지 - WSJ

(A Post-Shutdown Priority: Build More 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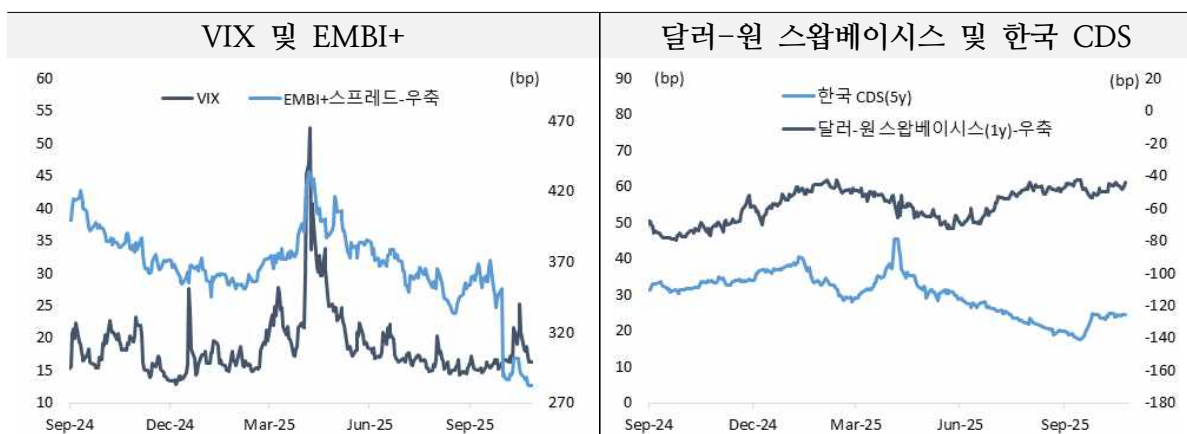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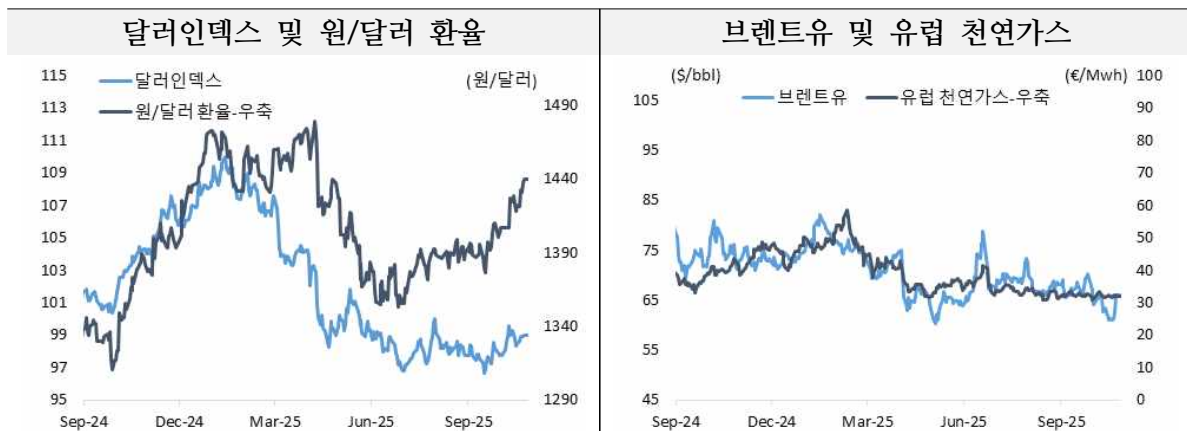
■ 미국의 對동남아 무역 협상, 중국産 제품 파악 및 반영 수준이 핵심 쟁점 - NYT

(The 'Sleeper Issue' at the Heart of Trump's Trade War on China)

■ 3년 전의 채권수익률 역전, 경기침체 신호 발신의 실패 사례가 될 전망 - 블룸버그

(The Bond Market's Favorite Recession Signal Is on the Fritz)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